

나인협 선생의 민족혼 대연고개에 깃들다

◀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명▶

도시철도 2호선 뚝골역과 지랫골역 사이에 있는 대연고개길은 도로 명주소로는 홍암1길이다. 3·1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인 가운데 한 명인 홍암 나인협 선생의 아호를 따 도로명주소를 붙였기 때문이다. 1960년대 초까지 홍암 선생의 묘가 바로 인근에 있었다.

대연고개(홍암1길) 초입 골목에 위치한 천도교 부산 대연교구. 지난 17일 동천교구장 김학봉(동천교 교사)씨의 안내로 교구 문을 열고 들어갔다. 마당 한편에 까만 비석 하나가 눈에 띄었다. “홍암 나인협 선생 묘 입구”라는 비문이 새겨져 있다. 1962년 홍암의 묘가 애국지사묘역으로 옮겨지기 전까지 묘소를 지키던 표지석이다. 김 교구장은 “홍

천도교 대연교구 앞마당 묘 표지석 50년간 원형 보존

6.25때 부산 피난후 별세 1962년까지 남구에 묘소 뒤

암 선생의 유해를 이장하면서 표지석은 이곳으로 옮겨와 원형 보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33인 민족대표 홍암 나인협과 남구, 대체 어떤 인연이 있었든 결과,

홍암은 1872년 평안남도 성천에서 태어나 제법 유복하게 자랐다. 19세에 동학에 입교했고 22세였던 1894년 동학농민혁명에도 참가하는 등 남다른 민족관을 가졌다.

3·1운동이 있기 나흘 전인 1919년 2월 25일 홍암은 천도교 기도 종료보고와 고종의 국장장배를 위해 서울로 내려와 천도교 교조인 손병희 등과 만났고 여기서 3·1만세 운동의 은밀한 계획을 듣게 된다. 최린, 오세재 등과 함께 독립선언서 초안을 검토한 뒤 민족대표 33인에 이름을 남긴다. 3월 1일 오후 2시에 서울 태화관에서 민족대표들과 모여 독립선언서와 공약장장을 낭독하고 만세 삼창을 외치다 연행돼 서대문 형무소에서 2년간 옥고를 치른다.

출옥 후 평양시 장천리로 주거지를 옮긴 홍암은 6·25전쟁이 터지기 전까지 천도교 포교 활동에 매진했다. 여든을 바라보던 그는 전쟁이 발발하자 아들의 부축을 받으며 노구를 끌고 임진강변(동강변)을 지나 부산으로 피신을 오게 된다. 여

느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 홍암도 말년의 팍팍한 삶을 보냈다. 부산으로 내려와 범일동 변전소 뒷산 산비탈에 부인, 아들, 손자, 손녀와 단칸방 판자집에서 생활했다. 판자와 양철로 열기설기 뒤틀린 단칸 ‘하교방’에는 늘 비가 섰다고 한다. 노환과 지병으로 1952년 4월 16일 아침 향년 80세에 숨을 거둔다.

비록 난리통이었지만 그의 죽음을 애도해 이례적으로 부산지역 역내에 민소를 차리고 초량역 광장에서 사회장으로 영결식을 치렀다. 이 무렵 언론들도 일제히 그의 부을 소식을 대서특필 전하기 시작했다. 국회의장과 대법관이 조문객으로 오는가 하면 국회에서는 의원 전원이 기립해 목욕을 올리고 세바의 1할을 조위금으로 낸 것을 결의했다. 정부에서는 조의금으로 200만원과 국무위원 전원이 조화를 보내왔다. 몇 남지 않은 민족 영웅에 대한 미안함과 마지막 예우였을 것이다.

선생의 묘는 1962년 박정희 정권이 고인에게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면서 서울 국립묘지로 이장되었고 묘소가 있던 자리에는 주먹들이 들어섰다. 홍암의 묘가 왜 대연고개 비탈에 쓰게 되었을까. 선생의 증손인 나병재(평택시 안중산부인과



천도교 동천교구장인 김학봉씨가 천도교 대연교구 앞마당에 보존하고 있는 민족대표 나인협 선생의 묘지 표지석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원장)씨의 증언에 따르면 이렇다.

“당시 대연동 산이 부산방송국 소유했는데 장제에 참여한 어느 지관이 대연동 산을 묘소로 쓰는 게 좋겠다”고 해서 대연고개에 묘하게 되

었습니다. 훗날 묘소가 있던 땅을 할아버지(홍암의 아들)가 불하받아 지키고 있다가 도시 확장에 따라 개밭이 진행되면서 묘소 이장을 요청해 국립묘지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 마쳐

남구의 문화사절단인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5일 부산문화회관 중앙당에서 열려 1년 간 갈고 닦은 기량을 마음껏 뽐냈다.

이날 연주회는 공식행사~여는무대~축하공연~퓨지컬~축하공연~나라사랑 독도사랑 순으로 2시간 가량 펼쳐졌다. 연주회의 하이라이트는 디즈니 애니메이션 언어공주, 미녀와 야수 등에 삽입된 곡들을 합창한 뮤지컬 파트였다. 애니메이션에

등장했던 의상을 입고 나와 발랄한 율동으로 관객들의 마음을 훔쳤다. 이밖에 축하공연에서는 베이스바리톤 양재원씨와 소프라노 박희정씨 그리고 장원시립합창단 여성중창단 “VII”이 수준 높은 하모니를 선보여 박수갈채를 받았다.

폐막 무대인 ‘나라사랑 독도사랑’에서는 단원들의 태극기 물결 속에서 송창식 작곡의 ‘내나라 내겨레’ 등 애절한 노래를 불러 관객들로부터 앙코르 요청을 받기도 했다.



남구 소년소녀합창단의 제5회 정기연주회가 지난 15일 부산문화회관에서 열렸다.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모집

어린이 문화사절단으로 활동할 남구 소년소녀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한다. 남구에 거주하거나 남구에 있는 학교에 재학중인 3~5학년 초등학생들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며, 공개오디션을 통해 선발한다. 접수기간은 3월 6일까지고 공개오디션은 3월 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남구청 1층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문의 ☎ 607-4064

남구 어린이집 2곳

수기공모 3편 당선

2013년 부산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의 교직원 수기공모에 남구의 어린이집 2곳이 당선자 8편 가운데 3편을 배출해 화제가 되고 있다.

대연동에 있는 행복한어린이집의 정명하씨가 24시 야간보육교사의 애환과 보람을 담은 ‘내 나이 서른 중반’으로 우수상(상금 50만원)을 얻었다. 같은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구은주씨와 왕자와공주어린이집(용호동)의 서혜란씨가 각각 장려상을 받아 상금과 상패를 받았다.

“치매 예방에 서예만 한 게 없어요”

LG메트로시티경로당 무료서에 지도하는 이희국씨

용호동 LG메트로시티 2단지 경로당에서 무료 서예교실을 운영하는 이희국(64)씨는 “서예는 필순 하나, 점 하나에 온 신경을 집중하기에 뇌가 저절로 활성화된다”고 강조했다. 이 씨가 경로당에서 무료서예교실을 시작하기 만 1년이 됐다. 젊었을 때 취미로 붓을 들었던 그는 10년 전 사업을 정리하면서 본격적으로 서예에 몰입했고 작가로도 등단했다. 기량이 붙자 재능을 남들과 공유하고 싶었고, 지난해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을 찾아가 무료 서예교실을 열었다. 어르신들의 호응이 대단해 두 개반으로 분산해 수업하고 있다. 하루 2시간 30분씩 일주일 중 나흘을 수업에 매달려야 한다. 관내 경로당 가운데 무료서예교실을 운영하는 곳은 현재 이 곳이 유일하다.

“무표정했던 어르신들이 서예를 배우면서 점점 밝아지는 게 가장 큰 보람”이라는 그는 붓, 베풀 같은 ‘지



필연목’도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붓글씨가 하나의 예술에 비유되는 서예(書藝)는 중국에서는 글씨 쓰기에 세상 이치가 담겨 있다 해서 서법(書法)으로, 일본에서는 수양이 자 도를 닦는 것과 같다 하여 서도(書道)로 불립니다. 이러니 무료한 어르신들이 취미로 하기에 얼마나 좋습니까.”

(사)문헌지갯골장학회 기부금단체 등록

이종현 회장 “후원자에 세제 혜택… 기금 확충 기대”

기려기문화원 이종현(73) 이사장은 요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질 않는다. 그가 10년 전부터 회장으로 맡고 있는 (사)문헌지갯골장학회(이하 장학회)가 지난 연말 지정기부금 단체로 등록이 돼 올해부터 회원과 후원단체에 소득공제 혜택을 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문헌3동에 기반을 둔 장학회는 지난 1995년 1월에 출범해 올해로 성년을 맞았다. 설립 당시 출연금으로 모은 종자돈 3000만원은 세월과 함께 기금 2억3000만원으로 불어났다. 그동안 형편이 어려운 관내 중·고등학생 238명에게 8000만원에 가까운 장학금을 지급했다.

그는 “장학금은 주로 기금 이자수입으로 조달하는데 근래들어 금리가 바닥을 쳤고 경기까지 나빠 장학회 운영에 어려움이 많았다”며 “하지만 연말 소득공제가 되면 기금 확충이



훨씬 수월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금이 3억원 정도 쌓이면 중고생 외에도 생활이 어려운 대학생에게 4년 장학금을 대줘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게 도와주고 싶다”는 포부도 밝혔다.

건축물석면조사 조사기한 및 실시 안내

「석면안전관리법」 시행으로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소유자께서는 법정기한인 2014년 4월28일까지 석면조사를 실시하여야 합니다.

- 건축물석면조사 대상
 - 연면적 500㎡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특수법인
 -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에 따른 다중이용시설
 -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건축법」 제2조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 및 어린이시설로 연면적 500㎡이상인 시설
 - 「영유아보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중 연면적 430㎡ 이상인 시설 등
- 건축물석면조사 조사기한 : 2014. 04. 28. 까지
 - * 2000년 1월1일 이후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신고)를 한 건축물은 2015년 4월28일까지
- 문 의 처 : 남구청 환경위생과 ☎607-4394

신일 이불 솜 공장

- 현솜을 틀어서 새솜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숙련된 전문가가 직접 이불 깎매 드립니다.
- 훈수이불, 침대카바,애기이불 있습니다.
- 100%목화솜,명주솜,배개솜 있습니다.

☞ 위치 : 남구 동명로 146-47 (용호동)

☎ 051)626-3558

☎ 010-3831-2457

전통의 디자인/자격증취득교육기관

디자인전문가과정

디자인자격증과정

시각디자인 전문가 과정
인테리어디자인 전문가 과정
웹디자인 전문가 과정
편집디자인 전문가 과정
광고디자인 전문가 과정
스케치/렌더링 과정
삽디자인전문가 과정

실내건축산업기사/기사
컬러리스트 산업/기사

컴퓨터그래픽기능사
웹디자인기능사
전자출판기능사

인벤터/맥스 기술자격증
GTQ 그래픽기술자격증

전산응용건축/기계기능사
일반기계기사 자격증
기계설계산업기사/기사

검할 1/2급

캐드공인교육기관

캐드시험장

ATC1/2급

경성대부경대 서울나래컴퓨터디자인학원 T.627-2750

국비실업자 과정 개강

대상 : 신규실업자, 주부, 아간대학생, 취업준비생

컴퓨터활용능력 (1급)

03월 10일 28회차 오후 9시

엑셀 실무

03월 17일 3회차 오후 3시

웹 디자인

03월 24일 2회차 오후 12시

정보처리기사실기

03월 03일 1회차 오후 9시

★고등비 : 매월 50,000원 지급 ★식비 : 매월 66,000원 지급 (1월 2회목 5시간)

국비직장인 과정 개강

03월 03일 OA과정 ▶월,△,금

03월 03일 포토샵 ▶월,△,금

03월 04일 권플2급 ▶화,목

고등비의 12회/직장인의 12회

원만 컴퓨터 기초, 응용, 고급수업은 1회 개인수업입니다

선일컴퓨터학원

용호동 LG 메트로앞 우리은행 4층 Tel) 621-2169

www.choni.com 홈페이지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 임마누엘하우스

어르신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고자하는 임마누엘하우스요원입니다. 늘 어르신들에 입장에서 생각하고 자녀의 마음으로 한분한분 모시고싶은 마음입니다. 해가 거듭날수록 많은분들이 병환의 고통에 시달리고 그 고통으로 인해 생긴 마음과 육신의 상처를 저희 임마누엘하우스에서 대신하고자하오니 언제든지 찾아주십시오.

- 입소대상 : 65세 이상 노인정질병 (치매, 중풍, 뇌졸중 등)을 가진인
- 기본제공서비스 :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영양관리서비스, 위생
- 1등급~3등급 (목욕서비스 등 24시간제공)

※ 연계병원 : 온종합병원, 춘해병원, 제창한의원

지하철2호선 문현역 4번출구 문현여중 옆

24시간항상 ☎051)633-8488~89

부경대학교 한국어교원양성과정 수강생 모집

한국어교사 자격증 취득의 지름길!

- 신청자격 : 대학(원) 재학생 및 일반인
- 수업기간 : 2014. 4. 7. (월) ~ 6. 17. (화)
- 접수기간 : 2014. 2. 3. (월) ~ 3. 21. (금)
- 수업시간 : 18 : 30 ~ 21 : 30 (매주 월~목)
- 모집인원 : 30명

부경대학교의 우수한 프로그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부산파יק대학교

국제교류부 051-629-6905